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 그리고 이광수

– 제2차 유학시절 이광수의 사상적 궤적을 중심으로

Modernity of Imperialism and Colony – Lee Kwang-soo's Trace of thoughts in the Second Studying in Japan –

저자
(Authors) 崔珠澣
Choi Ju-han

출처
(Source) [어문연구 36\(4\)](#), 2008.12, 421–446 (2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어문교육연구회](#)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104564>

APA Style 崔珠澣 (2008).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 그리고 이광수. 어문연구, 36(4), 421–446.

이용정보
(Accessed) 고려대학교
163.152.3.31
2016/06/15 18:2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 語文論文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 그리고 이광수

— 제2차 유학시절 이광수의 사상적 궤적을 중심으로 —

崔 珠 澣

(西江大 講師)

要約 및 抄錄

본고는 제2차 유학시절 이광수의 사상적 궤적을 체제 순응적 타협이 아니라 조선의 문명화에 제국의 식민지배 정책을 逆活用하고자 했던 전략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다. 1910년대 무단통치기 제국 일본은 이념적으로는 조선 문명화의 명분을 내걸면서 제도적으로는 철저히 조선인을 종속적인 지위에 두는 이중적인 식민지배 전략을 구사했다. 이에 조선의 문명화만이 민족 소생의 길이라 믿었던 이광수는 異民族의 同化를 위해 제국이 내건 문명화의 명분을 민족적 이상을 일깨우고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地盤으로 활용하는 한편, 사상적으로도 제한적이나마 同情과 連帶에 기반한 相互扶助의 윤리를 도입함으로써 優勝劣敗를 정당화하는 제국주의적 사회진화론의 논리를 넘어선다. 『2·8 독립선언서』는 그러한 타협의 수사를 벗어버렸을 때의 맨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글이다.

※ 핵심어 : 이광수, 식민주의, 문명화, 사회진화론, 동정, 연대감

I. 식민지에서 근대를 추구한다는 것

우리는 곧잘 근대의 식민주의가 항상 억압적이고 적대적인 타자의 모습을 띠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식민지 근대가 지녔던 해방적인 힘의 가능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文明의 이름으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제국의 논리에 포섭되어 버린 ‘식민화된 정신’의 탓이라고 여긴다. 여기에는 문명의 이름이란 곧 제국의 논리

이고, 제국의 논리를 수용한 이상 식민지는 필연적으로 제국의 논리에 종속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당대의 지식인들은 과연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제국의 논리를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을까. 그들이 받아들인 문명의 논리란 다만 제국의 힘을 모방하거나 추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했던 것일까.

식민주의와 근대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아마도 제국의 식민 지배가 식민지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억압이 아니라 지배 헤게모니 창출을 위해 식민지와 상호작용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일 것이다. 사실 결과론적인 견지에서 문명의 이름으로 근대를 추구하고자 했던 당대 지식인들의 노력을 식민화된 정신의 산물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우열관계를 환원론적으로 반복하게 될 뿐이다. 근대의 식민주의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반응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반응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면서 헤게모니를 창출해내야 했다. 근대 문명에 의지하여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의 蘇生을 도모하고자 했던 당대 지식인들에게 그들 나름의 생존을 위한 싸움의 터전을 열어주었던 것은 바로 이 틈, 즉 제국이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았던 것 사이의 이 공간이 아니었을까.

1910년대의 대표적인 문명론자로 꼽히는 이광수만큼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 사이의 팽팽한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논자도 드물다. 이광수에게 제국이 과시하고 있던 근대 문명의 힘은 한편으로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의 비참한 처지를 뼈아프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개인과 민족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긍정하고 해방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거기에서 이광수는 자신을 비롯하여 전근대적인 질서에서 해방된 개인들의 상승 가능성을 보았고, 이렇게 낡은 질서에서 자유로워진 개인들이 새로운 민족적 이상을 지니고 분투한다면 단숨에 제국의 근대를 따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었다. 이광수가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현실을 두고 “우리 父老들은 세상이 말세가 되어 이렇게 될 것이라 하고,拱手하고 한탄만 합니다. 아니외다. 이는 잘못 생각함외다. 末世가 된 것이 아니라 新世가 된 것이외다”¹⁾하고 과감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종종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체제

1) 이광수(1916.11.26~1917.2.18), 『농촌계발』, <매일신보>, 『이광수전집 10』,

순응적 문명주의 탓이 아니라, 근대 문명이야말로 열강 제국 간의 치열한 경쟁의 시대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의 소생을 가능케 할 유일한 힘이라는 신념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광수가 조선에 문명을 보급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제도로 여긴 것은 단연 ‘교육’과 ‘언론’이다. 이광수에게 ‘교육’은 “愚者를 知케, 貧者를 富케, 弱者를 強케, 衰者를 盛케, 내지 死者를 活케”²⁾하는 그야말로 한 사회의 사활을 손에 쥐고 있는 가장 긴요한 방편이며, 잡지와 신문을 비롯한 ‘언론’ 또한 조선 “十三道가 一家”라는 “공동된 감정”³⁾ 아래 민족적 이상을 일깨우고 분발을 촉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당시 이광수가 게이오의숙의 경영자이자 <時事新報>의 창시자였던 후쿠자와 유키치에 주목했던 것도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그는 후쿠자와에게서 신문명의 보급으로 신일본 건설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교육’과 ‘언론’의 힘을 보았던 것이다.⁴⁾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1910년대 무단통치기 식민지 조선의 교육과 언론은 이념적으로는 조선 문명화의 명분을 내걸면서 제도적으로는 조선을 철저히 종속적인 지위에 두는 이중적인 식민 전략으로 인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교육제도라고는 4년제 보통학교와 실과 중심의 4년제 고등보통학교(일본의 중학교 1학년 수준)를 핵심으로 하여 민족적 차별을 제도화했던 열악한 성격의 것인데다 그나마 ‘時勢와 民度’를 내세운 愚民化 방침에 따라 근대 교육제도의 보급은 미미한 상태였고,⁵⁾ 언론 또한 완전히 봉쇄되어 있어 접근 가능한 것이라고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가 유일한 것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2차 유학시절 근대 문명의 도입에서 민족 소생의 길을 보았던 이광수가 제국 일본을 향해 ‘교육’과 ‘언론’의 개방을 요구하며 일면 과감하고도 위태로운 모험에 나서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洪水以後>·<매일신보>와의 접촉을 기점으로

삼중당, 1973, p.93.

2) 이광수(1916.9.27~11.9), 『동경잡신』, <매일신보>, 위의 책, pp.299~303.

3) 이광수, 『농촌계발』, 위의 책, pp.87~93.

4) 이광수, 『동경잡신』, 위의 책, pp.317~318.

5) 고마고메 다케시(2008),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오성철 외, 역사비평사, pp.128~142.

하는 제2차 유학시절 이광수의 사상적 궤적을 단순한 체제 순응적 타협이라기보다 조선의 문명화에 제국의 식민지배 정책을 역활용하고자 했던 전략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洪水以後>와 <매일신보>를 향한 이광수의 과감하고도 위태로운 타협의 도정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결국 異民族의 同化를 위해 제국의 문명화 이념을 민족적 이상을 일깨우고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地盤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의 산물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3장에서는 일면 조선 문명화의 명분을 내건 제국의 식민지배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광수의 문명론이 제한적이거나 同情과 連帶에 기반한 相互扶助의 윤리를 도입함으로써 優勝劣敗를 정당화하는 제국주의적 사회진화론의 논리를 넘어서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마지막 4장에서는 그간 2차 유학시절 이광수의 사상적 궤적에서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온 『2·8독립선언서』를 이전 사상과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II. <洪水以後>와 <毎日申報>라는 매체

2차 유학시절 이광수의 사상적 궤적을 살피는 데 <洪水以後>와 <매일신보>라는 매체가 가진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시 근대 문명의 도입에서 민족 소생의 길을 보았던 이광수에게 이 두 매체와의 접촉은 근대 문명의 도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반의 확보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우선 이광수가 카야하라 카잔(茅原華山)이 간행하던 잡지 <洪水以後>와 접촉하게 된 계기는 이 잡지의 전신이었던 민권론 계열의 잡지 <第三帝國>이 당시 일본 유학생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일찍이 <第三帝國>은 ‘小日本主義’와 ‘植民地放棄論’을 내세우며 제국의 식민지 정책 비판에도 적극적이었는데, 당시 학우회 소속으로 이광수와 함께 활동했던 도쿄제국대학의 김우영과 메이지대학의 장덕수 등은 <第三帝國> 편집자들의 방침에 호응하여 일본의 무단통치를 비난하는 글을 투고하기도 했다고 한다.⁶⁾ 그러나 <第三帝國>은 카야하라의 사상적 이탈로 내분이 생겨 1915년

6) 松尾尊兌(2001), 『大正デモクラシー』, 岩波書店, pp.149~150.

11월 57호를 마지막으로 終刊되고, 이후 카야하라 카잔 파의 <洪水以後>와 이시다 토모지(石田友治) 파의 <新理想主義>로 분열된다. 말하자면 와세다에 적을 둔 지 얼마 안 되었던 이광수가 『제삼제국』의 존재를 알았을 때 이 잡지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던 것이다. 이에 이광수는 <第三帝國> 당시 민권론 계열의 독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독자논단을 그대로 계승한 <洪水以後> 쪽에 접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洪水以後>에 투고한 「조선인 교육에 대한 요구(朝鮮人教育に對する要求)」(1916.3)⁷⁾는 과감한 타협적 수사 아래 제국 일본의 同化政策을 지지하며 제국의 식민지 교육정책을 역공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글의 핵심은 한마디로 실질적인 同化政策의 실현이라는 전제 아래 일본의 교육체제에 비해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조선의 교육체제를 일본 내지의 수준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한 데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교육체제는 4년제 보통학교와 실과 중심의 4년제 고등보통학교를 사실상 완성교육기관으로 삼아 민족적 차별을 제도화했던 열악한 성격의 것이었다. 이념적으로는 동화주의를 내걸고 조선 문명화의 명분을 표방하면서도, 제도적으로는 ‘時勢와 民度’의 잣대 아래 철저히 조선을 종속적인 지위에 두어 전근대적인 피치자 의식에 근대적인 규율을 가미한 체제 순종적인 인간상을 창출하려는 이중적인 식민 지배 전략이 교육제도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광수는 바로 이점을 겨냥하여 조선의 현 교육체제가 일본의 교육체제에 비해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며, 이래서는 당국이 것처럼 강조하는 同화와 日鮮融和의 내실을 거둘 수 없으니 조선에 일본과 동일한 교육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⁸⁾

병합 당시 일본은 뭐라고 말했는가. 조선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

7) 孤舟生(1916.3), 「朝鮮人教育に對する要求」, <洪水以後> 8号. 최근에 발견된 이 글(波田野節子, 「이광수의 제2유학시절에 대해서」, 『한국 현대문학과 일본』, 한국현대문학학회 학술발표 자료집, p.50 도표 참조)은 1910년대 제국의 근대를 겨냥한 이광수의 과감한 타협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번 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긴요한 자료를 보내주신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8) 孤舟生(1916.3), 「朝鮮人教育に對する要求」, <洪水以後> 8号, p.51.

는가. 그렇다면 일본의 新府民인 조선인의 행복은 완전한 일본 신민이 되는 데 있고, 완전한 일본 신민이 되려면 **우선 일본 신민과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당국은 걸핏하면 同化, 동화 해댄다. 우리도 속히 동화되기를 바라지만, 여기서 이른바 동화란 완전한 일본 신민이 되어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요구되는 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게 된다는 의미에서이지, 언제까지나 식민지 토인으로서 협찬권이 없이 조세를 납부하고 일본인에게 부림당하는 기계가 된다는 의미에서는 아니다.⁹⁾

조선인도 同化를 바란다는 것, 그것도 완전한 일본 신민이 되어 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싶다는 그의 주장은 일면 제국의 동화론과 호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물다섯의 혈기왕성한 청년으로서 민족의 소생을 꿈꾸며 그 방편을 도모하고 있던 이광수가 일본인과 동등해지기만 한다면 제국에 동화되어 일본 신민으로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그는 식민지 말기 제국의 ‘동포’를 향해 전향을 선언하는 자리에서도 과거 30년간 日鮮融和를 외치는 위정자나 민간 義人들의 말이란 “나를 무마하기 위한 허황된 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정자의 진짜 의도를 모르는 인도주의 자일 것”¹⁰⁾이라고 생각했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여기서 자신도 동화를 바란다는 주장은 제국의 동화론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바로 다음의 요구, 즉 “우선 일본 신민과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수사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당시 이광수는 제국의 식민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일본의 민권론자들 또한 다만 ‘위정자의 진짜 의도를 모르는 인도주의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동화론 지지라는 과감한 타협적 수사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사상적인 후퇴로 인해 독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洪水以後>는 반년도 채 되지 않아 폐간되고, 이광수 또한 제국의 민권론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광수는 국내로 시선을 돌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

9) 孤舟生, 앞의 글, p.51.

10) 이광수(1940.10.1~9), 『동포에 고함』, <경성일보>, 김원모·이경훈 편역 (1997), 『동포에 고함』, 철학과 현실사, 1997, p.15,

보> 쪽에 주목하게 되는데, 제국의 민권론자들을 상대로 했던 과감한 타협적 전략이 여기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무부츠옹의 추억』(1939)의 추억에 따르면, 이광수가 당시 <매일신보>의 사장이었던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와 처음 만난 것은 “1916년(大正 5)의 초가을”의 일이다. 당시 와세다대학에 적을 두고 있던 이광수는 여름방학을 마치고 동경으로 돌아가는 도중 경성에 들렀다가 당시 매일신보 기자였던 심우섭에게 이끌려 아베를 찾아가게 된다. “아베 씨에게 군 이야기를 벌써 해 두었어. 오늘 군을 데려 가겠다고 약속했다”는 심우섭의 언급으로 보아 이 만남은 이광수를 탐색하기 위해 아베 쪽에서 주선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광수는 이날 아베와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날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끊어버리고 있다.¹¹⁾ 이날 처음 만난 아베의 인상은 물론 된장국과 단무지와 김을 차린 조반과 아주 맛있는 이질풀을 달인 물을 대접받았던 것까지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가, 아베와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말 기억할 수 없었던 것일까. 아베와의 만남 직후 <매일신보>에 투고된 두 편의 글 『贈三笑居士』와 『대구에서』는 이날 이광수가 아베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글이다.

우선 『증삼소거사』는 1916년 9월 8일자 2면 하단 現代詩壇란에 ‘孤舟生東上途中’이라는 附記와 함께 실린 한시이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동경으로 상경하는 길에 ‘三笑居士’에게 드린 한시인 셈인데, 여기서 ‘삼소거사’란 바로 아베를 가리킨다. 김영민은 ‘남쪽 시내 그윽한 집에서 그대를 만났네’라는 첫 행에서 ‘南溪幽屋’이 당시 <매일신보>의 감사였던 나카무라 켄타로(中村健太郎)의 堂號였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¹²⁾ 그러나 당시 아베가 살던 旭町(지금의 회현동)에도 지금은 복개되어 도로가 되었지만 旭川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 또 이광수가 아베의 집에 대한 첫인상을 “정말 허술한 것이어서, 위세등등한 경성일보 사장 댁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계유옥’은 당시 아베가 살고 있던 旭町의 소박한 집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한시에 그려진 인물의 인상은 『무부츠옹의

11) 이광수(1939.3.11~17), 『무부츠옹의 추억』, <경성일보>, 앞의 책, p.244.

12) 김영민, 앞의 논문, pp.114~115.

추억』에서 묘사된 아베의 인상과 그대로 일치한다.¹³⁾

南溪幽屋始逢君 남쪽 시내 호젓한 집에서 그대를 처음 만났네
禪榻焚香人自薰 참선 자리 향을 피워 사람이 절로 향기롭고
體胖眼靑容似笑 편안한 몸가짐에¹⁴⁾ 맑은 눈빛 얼굴은 미소를 머금은 듯
滿胸道味定飭飭 가슴 가득 도의가 필시 꼭 차있을 듯하네

이광수가 아베에게 이렇게 호의적인 獻詩를 지어 올린 것으로 보아 이날 만남에서 아베 또한 이광수에게 상당한 호감과 공감을 표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편지글 형식의 『대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이광수가 아베에게 조선에 필요한 정책을 대담하게 직접 제안한 글이다.¹⁵⁾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916년 초가을 이광수는 여름방학을 마치고 동경으로 돌아가는 도중 경성에 들렀다가 아침 일찍 심우섭과 함께 아베를 찾아가 검소한 조반을 대접받았고, 아베를 拜別하고는 바로 기차에 올라 대구에 도착했다가, 당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었던 대구 청년들의 강도 사건을 화제삼아 아베에게 ‘高評’을 구하는 형식으로 아베의 동의를 얻어낼

13) “잠시 양옥풍 응접실에서 기다리니, 일본옷 차림의 웅이 웃으며 나타났다. 아주 살이 쪼으며, 콧대가 크고 눈꼬리가 처졌으나 형형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웅의 집은 대대로 검도 사범이었는데, 웅 역시 상당한 검도 수련을 쌓았으며, 또 禪 수업도 했다고 한다. 그 눈빛과 안정된 태도에는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이광수, 『무부츠웅의 추억』, 앞의 책, p.244)

14) 여기서 ‘體胖’은 ‘心廣體胖’의 줄임말로 ‘마음이 너그러워 몸도 편안하다’는 뜻이다. 이광수는 살이 쪼으면서도 오랜 검도 수련과 선 수업으로 다져진 아베의 몸가짐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다.

15) “아침에 선생을 拜別하고 종일 비를 맞으며 대구에 도착하였나이다”로 시작되고 있는 이 글은 1916년 9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매일신보>에 게재되는데, 여기서 ‘선생’ 또한 바로 아베를 가리킨다. 김윤식은 이 글이 편지 형식 중에서도 뒷사람에게 보고하는 ‘~하나이다’ 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여 그것이 한국청년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총독부에 건의한 글이라고 보았다.(김윤식(1999),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숲, p.543) 이는 당시 아베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사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광수가 <매일신보>와 인연을 맺게 된 경위에 좀 더 주목한다면 이 글이 바로 아베를 겨냥하여 쓴 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수 있을 만한 정책을 제안했던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글에서 이광수는 당시 대구 청년들의 강도사건이 자신의 포부와 능력을 펼칠 기회가 없는 조선 청년계에서 가장 일어나기 쉬운 죄악임을 강조하면서 그 구제책으로 학교교육과 사교기관과 강연과 신문, 잡지와 종교와 독서 등으로 청년들이 활동할 무대를 현대에서 구하게 하고 신사업을 넓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영리한 이광수는 아마도 이러한 자신의 제안이 아베를 솔깃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매일신보>는 동화정책 노선에 따라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것은 바로 조선에게 교육과 산업, 문명을 주기 위한 것임을 끊임없이 선전해 대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이광수는 『졸업생 제군에게 드리는 懇告』에서도 “당국이나, 오인이나, 조선인에 교육을 주고, 산업을 주고, 모든 文明을 주는 데는 意思가 일치할 줄 믿음”¹⁶⁾이라고 적고 있으며, 『오도답파기』에서 또한 당국은 동경 유학생들이 위험 사상을 가졌다고 의심하는 데 사실 이들이 정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산업 발달, 교육 보급, 사회 개량”¹⁷⁾ 등으로 당국의 뜻과 부합하는 것임을 애써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제국의 논리와 자신의 논리가 일치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이광수의 태도를 단순히 독립의 포기를 대가로 한 민족 개량주의적 발상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역으로 제국의 논리와 타협해 서라도 민족의 蘇生에 필요한 제도적 차원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던 그의 전략적인 노력을 읽어낼 수는 없을까.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광수에게 ‘교육’과 ‘언론’은 열강 제국 간의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문명의 보급을 통해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의 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을 의미했다. 신지식으로 무장한 청년이야말로 이 일을 맡아 해나가야 할 중추계층이었던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1910년대 무단통치시대의 식민지 조선은 교육이 미비한 것은 물론 언론도 통제되어 있는데다가, 농업과 상공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이 막강한 권력을 등지고 조선으로 쏟아져 들어온 일본인들에게 밀려 열악한 처지에 놓여

16) 이광수(1917.7), 『졸업생 제군에게 드리는 懇告』, <학지광>, 앞의 책, p.265.

17) 이광수(1917.4.26~9.12), 『오도답파기』, <매일신보>, 『이광수전집 18』, p.169.

있어서, 조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광수는 아마도 일단 조선의 청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또 청년들이 활동할 무대가 갖추어지기만 하면 머지않아 조선 민족이 소생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깨우치고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의 유일한 언론 매체인 <매일신보>의 지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때마침 아베 쪽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음에랴. 짐작했던 대로 아베에게 올린 두 편의 글 「贈三笑居士」와 「대구에서」가 지면에 실리면서 <매일신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이광수는 바야흐로 <매일신보>를 무대로 조선과 총독부 측의 동시적인 주목 아래 화려한 문필활동을 벌이게 된다.

애초에 이광수를 주목했던 아베의 의도야 제국의 식민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필자를 확보하는 데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과 같이 ‘민족 감정’에 기반한 대중적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신문’이라는 근대적 인쇄 매체가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관념을 창출하는 데 미친 결정적인 영향에 관해서는 이미 베네딕트 앤더슨도 충분히 논의했던 바이거니와,¹⁸⁾ 『농촌계발』에서 김일이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양반이 되고 부자가 되겠다 하는” 민족적 이상을 일깨우고, 또 조선 “십삼도가一家”라는 “공통한 감정” 혹은 “사회심”¹⁹⁾을 불어넣기 위해 마을에 ‘신문’이라는 매체를 도입한 일화는, 이광수가 ‘신문’이라는 근대적인 대중 매체가 가진 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신문’이라는 근대적 매체와 이광수가 민족적 이상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공감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보았던 문학이 결합한 지점에서 탄생한 장편 『무정』이 “공감적 국민=민족 만들기”²⁰⁾ 기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異民族의 同化를 위해 제국이 내건 문명화의 이념을 역으로 조선의 독자적인 민족 정

18) 베네딕트 앤더슨(1991), 윤형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도서출판 남남, 제2장 문화적 근원과 제3장 민족의식의 기원 참조.

19) 이광수, 『농촌계발』, 앞의 책, pp.87~93.

20) 김현주(2004), 「1910년대 ‘개인’ ‘민족’의 구성과 감정의 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22집; 『상허학보』 12집; 김현주(2003), 「공감적 국민 = 민족만들기」, 『작가세계』, 여름 참조.

체성을 형성해가는 지반으로 활용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이광수의 문명론과 사회진화론

조선 문명화의 사명을 내건 이광수의 의도가 제국의 의도와 만나면서도 또 이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당시 그의 문명론을 뒷받침했던 社會進化論의 성격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광수의 문명론은 애초에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 제국 열강들 간의 치열한 식민지 쟁탈전을 배경으로 문명의 힘을 앞세운 제국주의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사회진화론이 부추긴 위기의식에서 제출되었다. 그 본격적인 영향을 논할 수 있는 글이라면 아무래도 『우선 獸가 되고 연후에 人이 되라』(1916.11.6 집필)를 꼽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이 글은 ‘생물학’의 권위를 빌어 진화란 “優者の 특권”이며 따라서 强者의 腕力은 그 자체로 정당한 반면 “도덕은 강자에게 복종하는 약자의 의무”라는 주장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어 당시 이광수가 제국의 사회진화론에서 받은 지적 충격을 그대로 전해준다.

『그의 자서전』에 따르면, 이광수가 다윈의 진화론을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대학시절 생물학을 비롯하여 천문학, 실험심리학 등의 과학 과목을 수강하면서 서였다고 한다.²¹⁾ 당시의 생물학이 곧 “다윈의 생물진화론”을 가리키는 것이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거니와, 당시 일본에서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충실하게 소개한 오카 아사지로(丘淺次郎)의 『進化論講話』(1904)가 지식층에게 여전히 널리 읽히는 분위기였던 터라 이광수 또한 다윈의 진화론을 접할 수 있는 지적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²²⁾ 오카의 『진화론강화』는 “진화론

21) 이광수, 『그의 자서전』, 『이광수전집 9』, p.442.

22) 이에 관해서는 하타노 세츠코, 앞의 논문, pp.41~42를 참조할 것. 한편 와다 토모미는 이광수가 『그의 자서전』에서 헤켈의 저작 『알 수 없는 우주』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광수와 진화론과의 만남은 헤켈의 저작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윈’은 부호호만 유통되었을 뿐 주로 스펜서 및 헤켈을 매개로 도입되었던 근대 초기 일본의 진화론 보급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와다 토모미(2007), 『이광수 소설의 ‘생명’ 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2), 이러한 진화론 보급 상황은 그야말로 일본 근대 초기의 상황에 국한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와타나베 마사오(渡辺正雄)도 지적한 것처럼, 근대 초기 일본에 유입된 진화론이

은 신문명의 총원천”이라 하여 이광수가 『동경잡신』에서 “일반인사의 필독할 서적”의 하나로 꼽은 저서이기도 한데, “과학은 물론이어나와 현대 인류의 만반 사상은 윤리, 정치, 교육, 종교를 물론하고 진화론의 원리의 영향을 受하였으며”라는 언급에서도 드러나 있는 것처럼,²³⁾ 이광수가 이 책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다윈의 진화론 자체라기보다 이를 철학, 윤리, 교육, 사회, 종교 등 인간사회에 적용한 오카의 사상 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와타나베 마사오(渡辺定雄)는 『진화론강화』에 전개되어 있는 오카의 사상을 한 마디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오카의 사상 체계 - 인용자)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은 “생식작용과 마찬가지로 종속의 유지·번영”에 있고, 사회개량도 “자기가 속한 인종의 유지·번영”을 목적으로 한 데 지나지 않는다. 선악, 양심, 도덕, 종교의 근거와 의의도 오로지 단체의 생존 및 생존경쟁상의 유용성에 있다. 나아가 인간의 지력도 본래는 생존경쟁상의 유력한 무기였으나 상당히 발전하여 “이른바 탈선한 결과” 철학과 종교, 미신과 같은 ‘부산물’을 산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세계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 생존경쟁의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국가 간·종족 간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과학과 문명에서 타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²⁴⁾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오카의 논리는 중국에 인류의 생존과 진보를 위해서는 “지력·건강이 열등한 인종을 인위적으로 생존시켜 인종 전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줄이고, 지력·건강이 모두 우등한 인종이 어느 방면으로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제도를 가능한 한 완전히 하는”²⁵⁾

‘우승열패 적자생존’과 같은 단순화된 공식으로 받아들여진 데는 생물학설로서의 진화론이 아직 학문적으로 받아들여 형가하고 비판할 기초가 없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상황은 1904년 다윈의 『종의 기원』을 충실하게 소개하고 있는 오카 아사지로의 『진화론강화』를 계기로 어느 정도 극복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渡辺正雄(1971), 『進化論講話』解説, 講談社學術文庫, p.245)

23) 이광수(1916.9.27~11.9), 『동경잡신』, <매일신보>, 『이광수전집 10』, pp.325~325.

24) 渡辺定雄, 『進化論講話』해설, pp.249~250.

25) 丘淺次郎, 앞의 책, p.604.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제국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당한 자신감의 바탕에 일청전쟁에 승리하고 바야흐로 러시아라는 大國의 인종과 전쟁을 벌일 수 있을 만큼 강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국력에 대한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며 일약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동양의 문명 제국 일본과는 달리 식민지로 전락한 처지에서 이제 막 민족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던 이광수에게, 열등한 인종은 인류의 생존과 진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도태되어야 한다는 식의 냉혹한 논리가 오래 마음을 끌 수 없었을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강자의 腕力은 그 자체로 정당하고 도덕은 강자에게 복종하는 약자의 의무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오카의 논의에 전적인 공감을 표했던 「우선 獸가 되고 연후에 人이 되라」 이후, 그가 <매일신보>에 잇따라 발표한 세 편의 글 「동경잡신」(1916.9.27~11.9), 「교육가 제씨에게」(1916.11.26~12.13), 「농촌계발」(1916.11.26~1917.2.18)은 오카의 진화론이 지닌 또 다른 측면, 즉 인종의 개량·진보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人爲的 進化 가능성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광수에게 인위적 진화의 발상을 부여한 것은 당시 와세다대학의 교수이자 잡지 <太陽>의 주간으로 지식층에 널리 영향력이 있었던 우키타 카즈타미(浮田和民)였다는 의견도 있지만,²⁶⁾ 이러한 인위적 진화의 중요성에 관한 강조는 이미 오카의 『진화론강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생물의 진화는 자연도태의 결과이지만, 단체 안에서는 다만 자연도태에 맡기는 것으로 안심할 수 없다. 반드시 **인위적으로 이를 돕고** 단체의 유

26) 하타노 세츠코는 와세다시절 이광수의 마지막 논설 「신생활론」(<매일신보>, 1918.9.16~10.19)을 주로 언급하면서 이광수에게 인위적 진화의 발상을 부여한 것이 우키타 카즈타미(浮田和民)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하타노 세츠코, 앞의 책, pp.87~90) 하지만 제2차 유학시절 이광수의 글에서 인위적 진화의 가능성에 관한 사고가 엿보이는 것은 이 글이 처음이 아니며,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족에게 문명화의 시세를 깨우치고 생존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분발을 촉구하는 데는 교육과 언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생활론」에 보이는 우키타의 사상은 직접 영향을 받은 결과라기보다 인위적 진화에 정교한 논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때문에 수용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지·번영에 有功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존중하고 타의 모범이 되도록 권하고, 단체에 유해한 행위는 가능한 한 엄격히 제제를 가하여 다른 이에게도 경계시키며 [...] 대대로 태어나는 자손 가운데 가장 우수한 분자가 단체를 계승하도록 해야 한다. 이리하면 자기가 속한 인종의 진보·개량은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타인종과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점점 많아진다.²⁷⁾

여기서 다윈의 ‘自然淘汰’에 대비되고 있는 ‘人爲淘汰’란 다윈이 『종의 기원』 제1장 ‘사육 및 재배에서 생기는 변이’에서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용도와 기호에 맞게 선택을 누적시킨 결과 개량된 품종을 얻어내는 사육 과정상의 변이를 논한 것에 주목하여 오카 자신이 만들어낸 용어이다. 『진화론강화』에서 오카는 ‘인위도태’에 관해 한 장을 할애하여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이 개념을 중요하게 취급했는데,²⁸⁾ 그러한 인위도태 개념을 중국에는 “자기가 속한 인종의 진보·개량”을 뒷받침하는 방법론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문명 보급의 최우선적인 방편으로 학교교육과 학술잡지, 서적 등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동경잡신』, 교육의 목적은 개인과 종족의 보존·발전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펼칠 것을 교육계에 주문한 『교육가 제씨에게』, 시세에 도태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신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문명 조선의 장래에 대한 구상을 펼치고 있는 『농촌계발』 등은 모두 자기가 속한 인종의 진보·개량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오카의 발상과 상통한다. 오카의 ‘인위도태’ 개념은, 당시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도 몇 배로 노력한다면 제국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머지 않아 문명국의 지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광수의 신념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광수가 받아들인 인위적 진화 개념은 오카의 것과 일면 상통하면

27) 丘淺次郎, 앞의 책, pp.621~622.

28) 丘淺次郎, 앞의 책, p.71. “이렇게 현저한 변종이 어떻게 생기는고 하니, 그 방법은 오늘날에도 사육자가 항상 행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개체 가운데서 사육자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성질을 띤 것을 골라내어 이것을 번식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이 나온 자손 가운데서 또 사육자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성질을 띤 것을 선택하여 번식시키기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의 의도로 행하는 도태이므로 인위도태라 칭한다.”

서도 이와 이질적인 지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카는 앞서 인류의 생존과 진보라는 명분 하에 열등 인종의 도태를 당연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속한 인종의 진보와 개량을 위해서는 단체의 유지·번영에 有害한 분자를 도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약하고 어리석은 자도 훌륭히 생존시키는 제도는 모두 폐지하고, 지력·건강이 모두 우월한 자는 반드시 이겨 단체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열등한 자는 반드시 敗하여 물러나게 하는 구조로 고쳐야”²⁹⁾ 한다는 식이다. 이러한 오카에게 人道라든가 人權, 人格이란 관념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실제로 그는 “인도를 외치고 인권을 중시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모두 紙上의 空論이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정원의 꽃은 시드는 것처럼, 유해한 분자를 제거하는 것은 인종의 진보·개량에도 가장 필요하다”³⁰⁾고 공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광수에게 인도와 인권, 인격 개념은 식민지로 전략한 조선에 근대적 문명의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도 여전히 중요한 윤리적 근거였다. 오카를 만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광수는 “인도의 발달이 인류의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장차 우리 주장할 이 사회에게 선한 의미의 진화를 주어야 할 우리 청년”은 “제 가족이나 친지”의 범위를 넘어서 “一國과 세계와 우주만물”에 미치는 “대양 같은 넓고 깊은 同情”³¹⁾에 기초한 인격을 가진 위인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터였다. 여기서 ‘同情’이란 “나의 몸과 맘을 그 사람의 처지와 경우에 두어 그 사람의 심사와 행위를 생각하여 줌”³²⁾을 의미하는 만큼, 자기가 속한 인종의 진보와 개량이라는 명분 하에 열등한 분자는 가차 없이 淘汰시킬 것을 주장한 오카의 냉혹한 생존경쟁의 논리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윤리인 것이 분명하다. 오카를 만나면서 일시 자취를 감추었던 이러한 ‘동정’에 기초한 윤리는 『농촌계발』을 비롯하여 『무정』에서 다시금 부각되기에 이르는데, 여기에는 당시 경쟁을 강조한 제국주의적 진화론과 나란히 扶助를 강조한 무정부주의적 진화론이 지식층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상황도 한몫 했던 듯하다.

29) 丘淺次郎, 앞의 책, p.622.

30) 丘淺次郎, 앞의 책, p.604.

31) 이광수(1914.12), 『同情』, <청춘> 3호, 『이광수전집 1』, pp.558~560.

32) 이광수, 『同情』, 앞의 책, p.557.

『무정』을 읽다 보면 형식이 자신의 인생관과 우주관, 종교관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루소의 『참회록』과 『에밀』, 셰익스피어의 『햄릿』, 괴테의 『파우스트』와 나란히 크로포트킨의 『麵包의 掠奪』을 읽었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나온다.³³⁾ 이 책은 일본 무정부주의적 혁명가의 선구로 꼽히는 코토쿠 슈스이(幸徳秋水)가 번역하여 1909년 平民社에서 출간한 『麵包の略取』를 가리키는 듯하다.³⁴⁾ 당시 이시카와 타쿠보쿠(石川啄木)를 비롯하여 일본의 급진적인 청년들에게 고토쿠 슈스이가 미친 절대적인 영향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이거나와,³⁵⁾ 『무정』이 연재되던 1917년은 코토쿠를 이어서 타이쇼 시대에 이름이 높았던 무정부주의자 오스기 사카에(大杉榮)가 ‘진화의 일 요소’라는 부제를 달아 크로포트킨의 『相互扶助論』(靑陽堂, 1917)³⁶⁾을 번역하여 출간한 해이기도 하다.

당시 이광수가 크로포트킨의 『빵의 정복 The Conquest of bread』을 읽은 것은 물론 당대 무정부주의에 공명한 급진적인 일본의 청년들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해서였을 리가 만무하다. 『나의 자서전』에 나오는 “나의 두 번째 동경 생활은 일언이폐지하면 사상적 고민 생활”³⁷⁾이라는 언급으로 짐작건대, 그 자신 당대 일본 사상계를 휩쓸던 기본적인 사상적 흐름에 민감했던 까닭에 호기심으로 읽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同情’과 ‘相互扶助’와 같은 ‘사회 감정’³⁸⁾에 근거하여 토지와 식량, 주택, 교육 등 소수

33) 이광수, 김철 校註(2003), 『바로잡은 『무정』』, 문학동네, p.423.

34) 당시 번역서에는 다만 ‘平民社 譯’이라고 되어 있을 뿐 번역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幸徳秋水集』에 코토쿠에 대한 해설을 쓴 칸자키 키요시(神崎清)에 의하면, 이 책은 코토쿠 슈스이에 의해 번역된 것이라고 한다. 神崎清(1996), 『反戰・平和の原點, 幸徳秋水』, 『日本の名著 44- 幸徳秋水』, 中央公論社, p.55.

35) 특히 크로포트킨의 『빵의 정복』은 코토쿠의 저서 『二十世紀之怪物帝國主義』(警醒社書店, 1901), 『社會主義神髓』(朝報社, 1903)와 더불어 필독도서처럼 읽혔다고 한다. 神崎清, 앞의 책, pp.7~10.

36) クロフトキン(1971), 大杉榮, 『相互扶助論 - 進化の一要素』, 靑陽堂.

37) 이광수, 『나의 자서전』, 앞의 책, p.421.

38)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조직(소수에게 독점을 허용하는 자본주의 제도 - 인용자)은 오히려 **사회 감정**의 발달을 저해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 정직함과 자존감, 그리고 **동정과 상호부조**가 없다면 인류는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 강탈하여 목숨을 이어가는 몇몇 동물과 노예를 소유한 개미가 멸

에게 독점된 자본을 다수에게 돌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이 공동으로 이룩한 근대적 문명의 혜택을 고루 누려야 한다는 크로포트킨의 호소는 식민지 지식인 이광수로서도 공감하는 바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이러한 크로포트킨의 호소에서 소수 일본인의 손에 모든 자본이 독점되어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궁핍한 조선의 처지를 떠올렸을 테지만 말이다. 특히 프랑스혁명 당시 발휘되었던 민중들의 위대한 連帶의 힘을 웅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다음의 결론 대목에 이르러서는 조선 문명화의 사명을 자각한 청년들 또한 하나 되어 힘을 모은다면 조선의 장래 또한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다시금 확신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무릇 프랑스혁명 당시 모습을 드러낸 모든 위대한 사업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것을 꼽자면, 프랑스의 각지에서 파리로 달려온 위원들이 연합 시찰을 준비하기 위해 상·드·마르스 광장을 일구느라 모두 함께 손을 거든 때였다. 이날 프랑스는 하나였다. 새로운 정신으로 활기를 얻은 토지 공동작업 속에서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장래 자유를 얻은 사회 또한 이와 같은 공동작업을 통해 연대의 힘을 발견하고 그들을 분열시킨 증오와 억압을 소멸시킬 것이다. 이리하여 일 단 협동·단결의 힘—인간의 精氣와 창조력을 백 배 증진시킬 수 있는 막대한 힘—을 깨달은 신사회는 모두 청춘의 기력을 발휘하여 미래의 정복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³⁹⁾

사실 이 대목은 『무정』의 그 유명한 대단원 삼량진 장면을 그대로 떠올리게 만든다. 수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무기력하게 거리로 나앉은 사람들과 이들을 구호하기 위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젊은 청년들. 微力이나마 각자가 가진 재능을 발휘하여 자선음악회를 마련하게 된 것을 계기로 “너와 나라는 차별이 없이 온통 한 몸 한 마음”⁴⁰⁾이 된 청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다 같이 조선 문명화의 사명이 바로 자신들의 어깨에 놓여 있음을 자각하며,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대로 『무정』의 마지막 장은

망했던 것처럼 말이다.” 크로포트킨(1909), 『麵麴の略取』, 平民社, p.19.

39) 크로포트킨, 앞의 책, p.360.

40) 이광수, 김철 校註, 앞의 책, p.708.

조선 문명화의 사명을 어깨에 지고 동경으로 시카고로 유학을 떠났던 청년들의 활약에 힘입어 날로 문명화되어가는 눈부신 조선의 將來가 펼쳐지는 것으로 장식된다. 마지막 장에 펼쳐지고 있는 문명화된 조선의 장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그것은 바로 자선음악회라는 구호작업을 통해 발견된 공통된 감정과 연대의 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물론 당시 이광수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의 소생에 있었던 만큼, 여기서 동정과 연대의 범위는 민족 공동체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저대로 내어버려 두면 마침내 북해도의 아이누나 다름없는 종자가 되고 말 것”⁴¹⁾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조선 문명화의 사명을 다짐하고 있는 형식의 사고가 보여주듯이, 『무정』을 쓸 무렵 이광수는 여전히 문명화에 뒤떨어지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우생열패적 사회진화론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촌계발』에서도 환기되고 있는 것처럼, “공동한 감정”, 즉 “一洞이나 一門이나 一國이나 또는 전 세계를 자신으로 여겨 그를 위하여, 또는 그와 함께 울고 웃음”이 곧 “문명인의 일대 특징”⁴²⁾이라는 동정과 연대에 기반한 상호부조적인 사고가 그의 의식을 지배했던 또 하나의 흐름이었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무정』의 대단원 삼랑진 대목에서 조선인 청년들의 자선음악회에 공감을 표하고 지원해주었던 일본인 경찰서장을 비롯한 일본인 승객들에 대한 공감적인 묘사는 동정과 연대에 기반한 윤리적 요구로서 재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⁴³⁾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이 문명화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 공동체 내부의 동정과 연대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한편, 더 나아가서는 제

41) 이광수, 김철 校註(2003), 앞의 책, p.703.

42) 이광수(1916.11.26~1917.2.18), 『농촌계발』, <매일신보>, 『이광수전집 10』, p.93.

43) 하타노 세츠코는 음악회 장면에서 일본인 경찰서장이 ‘동포’라는 말을 입에 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대목이 선의만 강조된 비현실적인 인상을 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하타노 세츠코, 『『무정』을 읽는다(하) - 영채·선형, 삼랑진』, 앞의 책, pp.391~392) 아마도 제국의 관리로서 식민지의 조선인을 동포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태도가 위선적이라는 지적이었을 테지만, 문명인의 일대 특징이 “공동한 감정”이라는 이광수의 윤리관에서 보자면 일본인들에게 문명인으로서의 도리를 요구한 윤리적 감각의 소산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본다.

국 일본을 향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은 優者로서의 특권을 누리기보다 문명국의 일원으로서 조선의 문명화 노력에 공감하고 이를 지지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윤리적 요구를 내세웠던 이광수. 순진하다면 순진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윤리 감각은 안으로는 민족의 소생에 필요한 민족 공동체의 감각을 일깨우고, 밖으로는 조선 문명화의 명분을 내걸고 안으로는 ‘時勢와 民度’의 잣대 아래 철저히 조선을 종속적인 지위에 둠으로써 식민지배에 安着하려던 제국의 이중적인 식민지배 전략을 역공략하는 데 제한적이거나 효과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요컨대 1910년대 이광수의 문명론은 제한적이거나 동정과 연대에 의거하여 인류 진보에 대한 믿음을 표명했던 상호부조적 윤리를 도입함으로써 우승열패의 제국주의적 질서를 정당화했던 사회진화론의 논리를 넘어서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IV. 「2·8 독립선언서」, 타협의 수사를 넘어서

“조선청년독립단은 我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得한 세계만국의 前에 독립을 期成하기를 선언하노라”⁴⁴⁾로 시작되는 「2·8 독립선언서」는 기왕에 이광수의 사상적 궤적에서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김윤식은 준비론자였던 이광수가 ‘독립’을 외쳤다는 것, 게다가 독립을 얻기 위해 ‘血戰’도 불사하겠다는 투쟁론을 앞세운 것이 전혀 이광수답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춘원의 선언문은 춘원 자신이 품고 있던 사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추상적 문자의 나열”이자 “다만 그의 지식으로 멋있는 수사학을 구사하였을 뿐”이라고 혹평했고,⁴⁵⁾ 이동하 또한 다만 “유학생 집단 전체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필요성과 종전 후 독립운동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으로 인해 “평소의 타협적 개량론과는 정반대되는 논지의 글을 기초”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⁴⁶⁾ 한편 하타노 세츠코는 이광수에게 전전한 조선인의 감각을 심어주었던 ‘오산학교의 세계’의 분출이라는 관점에서 이광수의

44) 이광수(1919.2.8), 「조선청년독립단선언서」, 『이광수전집 10』, p.15.

45)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pp.682~685.

46) 이동하(1992), 『이광수 - 『무정』의 빛, 친일의 어둠』, 동아일보사, pp.80~82.

사상에 내재하는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직전의 저작”, 즉 2차 유학 시절의 저작과 “연속적인 정신 활동의 소산”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돌발적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⁷⁾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2·8 독립선언서』에 표명된 ‘독립’과 ‘혈전’에의 의지를 다소 과대평가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광수가 아무리 준비론자였다고는 해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월슨의 民族自決主義에 힘입어 세계 질서의 개편 가능성이 점쳐지던 시점에서 그것은 이미 시세에 동떨어진 전략이 아닐 수 없었다.⁴⁸⁾ 또 독립운동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돌발적인 기회가 주어졌다고는 해도, 평소에 품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갑작스레 쏟아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 『2·8 독립선언서』는 ‘독립’과 ‘혈전’의 수사를 구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수사를 견어내고 보면 전혀 다른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바로 이 선언서가 “吾人は 결코 如此한 武斷 專制, 부정 불평등한 정치하에서 생존과 발전을 향유키 불능”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의 ‘생존과 발전’, 그것은 바로 조선의 문명화로써 민족의 보존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그간의 이광수의 문제의식을 집약해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합병 이래 일본의 조선 통치 정책을 보건대, 합병시의 선언에 반하여 吾族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정복자가 피정복자에 대한 고래의 비인도적 정책을 襲用하여 오족에게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불허하며, 심지어 信敎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도 不少히 구속하며, 행정, 사법, 경찰 등 제 기관이 조선 민족의 私權까지도 침해하며 公私에 吾人과 일본인과의 간에 우열의 차별을 說하며, 오족에게는 일본인에 비하여 열등한 교육을 施하여 써 오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일본인의 사역자로 成케 하며, 역사를 개조하여 오족의 신성한 역사적 전통과 위엄을 파괴하

47) 하타노 세츠코, 『이광수의 민족주의사상과 진화론』, 앞의 책, pp.76~79.

48) 1918년 말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힘입어 국내 ‘자결’ 운동을 준비하고 있던 천도교 측도 하와이, 상하이 등지의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는 ‘독립’ 운동으로 방침을 바꾸었다고 한다. 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2, p.307.

고 능모하며, 소수의 관리를 제한 외에는 정부의 제 기관과 교통, 통신, 병비 등 제 기관에 전부, 혹은 대부분 일본인을 사용하여 吾族으로 하여금 영원히 국가 생활의 지능과 경험을 得할 기회를 不得케 하니, 吾人은 결코 如此한 武斷 專制, 부정 불평등한 정치하에서 생존과 발전을 향유키 불가능한지라. 그뿐더러 원래 인구 과잉인 조선에 무한으로 이민을 장려하고 보조하여 토착한 오족은 해외에 유리함을 不免하며, 정부의 제기관은 물론이고 사설의 제기관에까지 일본인을 사용하여 일단 조선인의 부를 일본으로 유출케 하고 상공업에도 일본인에게만 특수한 편익을 與하여 오족으로 하여금 산업적 발흥의 기회를 실케 하도다. 여차히 下方面으로 관하여도 吾族과 일본과의 利害는 互相背馳하여 期害를 受한자는 오족이니, 오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독립을 주장하노라.(강조 - 인용자)⁴⁹⁾

이광수가 「조선인 교육에 대한 요구」에서를 비롯하여 「대구에서」, 「동경잡신」, 「오도답파기」 등의 논설을 통해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교육의 개방과 언론·출판의 보급을 통한 사회 개량, 그리고 산업 발달의 요구였던 것을 고려하면, 여기서 ‘생존의 권리’를 내세우며 ‘독립’을 주장하기 위한 명분으로 나열되고 있는 각 항목들은 그대로 조선 문명화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이 선언서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러한 조선 문명화의 요구가 당국의 의사와도 일치한다는 이전까지의 타협적인 전제를 완전히 뒤집어 “吾族과 일본의 이해는 相互背馳”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러나 이 또한 일찍이 동화론 지지라는 과감한 타협의 수사를 구사하면서까지 조선에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던 「조선인 교육에 대한 요구」의 근저를 이루는 인식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일시적이거나 돌발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조선인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열등함을 안다. 따라서 조선인을 오늘날의 일본인과 평등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턱없이 국가를 미워한다거나 저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선인도 장래에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면 일본인과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만족할 것이 틀림없다. 물론 조선인 가운데는 독립을 꿈꾸는 자도

49) 이광수, 「조선청년독립단선언서」, 앞의 책, p.15.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독립을 외치는 가장 유력하고 보편적인 원인은 일본이 조선의 이익을 도외시키고 일본의 이익만 도모하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조선인을 압박하고 박해하여 조선 땅을 모조리 일본인만의 것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는 일본인의 지배를 받는 한 조선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조선인이 이런 오해(나는 오해이기를 바란다)를 품게 된 것은 꼭 조선인이 우매하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당국의 施政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訴訟은 대개 조선인의 패소로 끝난다. 관청에서도 일본인은 인격을 인정받아 말하는 바도 믿어주고 대우도 친절하지만, 조선인이 가면 턱없이 바보 취급하고 조소하며 심하게는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조차 ‘네놈’이라고 말하며 때리거나 발로 찬다. 사업 경영에서도 - 예컨대 鑛山의 認可 같은 것도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인이 따낸다. 저 東拓과 같은 것도 필시 조선인의 피를 빨아 살찌운다는 견해가 있다. 해마다 수만 정보의 전답을 매수해서는 그 전답으로 생명을 이어 온 조선인 농부를 쫓아내어 만주 벌판에서 방황케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在鮮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취하는 잔혹하고 放漫한 태도는 조선인으로 하여금 원한이 골수에 사무치게 만든다. 그리고 때로 총독부 측 유력자의 입에서 “조선인에게는 영원히 참정권을 줄 수 없다”는 식의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당장 참정권을 주겠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장래에는 줄 수 있다는 - 문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조선인도 일본인과 모든 면에서 평등하게 된다는 희망이 없으면, 조선인은 영원히 일본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文明은 노예로 하여금 영원히 노예가 되는 것을 감수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강조는 원문 그대로)⁵⁰⁾

비록 ‘동화’와 ‘타협’의 수사로 가득하긴 하지만, 제국 일본과 조선의 이해가 서로 상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서로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강조하고 있는 위의 인용문은 “오족과 일본의 利害는 相互背馳”하므로 “오족의 생존의 권리를 위해 독립을 주장”한다는 「2·8 독립선언서」의 논조를 이미 예비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타협의 수사를 벗어버린 「2·8 독립선언서」는 그 간 전략적 타협의 수

50) 孤舟生(1916.3), 「朝鮮人教育に對する要求」, <洪水以後> 8号, p.51.

사 아래 봉합해 왔던 제국과 식민지의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상은 물론, 이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던 식민지 지식인 본연의 맨얼굴을 생생하게 드러낸 텍스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명화만이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이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던 까닭에 제국의 근대를 향해 일면 과감하고도 위태로운 타협을 구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광수. 그러한 타협의 수사를 과감하게 벗어버린 자리에 드러난 맨얼굴이 낯설다면, 그것은 문명의 이름을 곧바로 제국의 논리와 동일시해 온 우리들의 고착화된 시선 탓이 아닐까.

V.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껏 2차 유학시절 이광수의 조선 문명화론은 잘해야 독립을 먼 훗날의 일로 기약하는 ‘준비론 사상의 맹아’이거나 아주 나쁘게는 독립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문명개화만을 말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친일파의 ‘문명개화지상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 왔다. 여기에 당시 이광수가 문명화의 목표로 내건 ‘산업 발달, 교육 보급, 사회 개량’론이 조선 문명화의 명분을 표방한 식민 당국의 지배 정책과 일치한다는 점이 주로 강력한 근거가 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 문명 지향성만을 가지고 당시 이광수의 문명화론을 제국 일본의 동화주의를 지지하는 체제 순응적인 타협론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면적임을 면치 못한다. 일찍이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20세기 일본 아이누의 정체성 정치를 고찰하면서 아이누를 20세기 일본 국민국가 질서 속으로 편입시켰던 동화정책이 애초의 의도를 이반하여 아이누 자신의 정체성을 주조하는 수단으로서 민족성·평등과 같은 근대적 언어를 갖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에 주목한 바 있는데,⁵¹⁾ 이는 이광수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洪水以後>와 <매일신보>와의 접촉을 기점으로 하는 2차 유학시절 이광수의 과감한 타협의 전략이 異民族의 同化를 위해 제국이 내건 문명화의 명분을 민족적 이상을 일깨우고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사상적으로도 제한적이

51) 테사 모리스 스즈키(2006),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임성모 옮김, 산치럼, p.239.

나마 동정과 연대에 기반한 상호부조적 윤리를 도입함으로써 우승열패의 논리로 조선의 식민지화를 정당화하는 제국주의적 사회진화론의 논리에서 벗어나고 있었음은 이미 살펴본 대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까지의 전략적 타협의 수사를 벗고 제국 일본과 식민지의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상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정의와 평등의 이름으로 민족적 생존권을 주장한 「2·8 독립선언서」는 2차 유학시절 이광수의 전략적인 문명화론의 연속선상에 위치한 텍스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자 료

『이광수전집』(1973), 삼중당.

이광수, 김철 校註(2003), 『바로잡은 『무정』』, 문학동네.

김원모·이경훈 편역(1997), 『동포에 고함』, 철학과 현실사.

孤舟生(1916.3), 『朝鮮人教育に對する要求』, <洪水以後> 8号.

丘淺次郎(1907, 初版本 1904), 『進化論講話』, 開成館.

クロボトキン(1909), 『麵麴の略取』, 平民社.

2. 논 저

김영민(2008), 「이광수 초기 문학의 변모 과정」, <현대문학의 연구> 34집, p.132.

김윤식(1999),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솔, p.543.

김현주(2003), 「공감적 국민 = 민족만들기」, <작가세계> 여름.

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2, p.307.

정선태(2004), 「이광수의 「농촌계발」과 「문명조선」의 구상」, <상허학보> 12집, p.211.

이동하(1992), 『이광수 - 『무정』의 빛, 친일의 어둠』, 동아일보사, pp.80~82.

황병주(2003), 「근대와 식민의 오딧세이」, <트랜스토리야>, 제2호, p.104.

- 고마고메 다케시(2008),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오성철 외, 역사비평사, p.128.
-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1991),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도서출판 나남.
- 와다 토모미(2007), 『이광수 소설의 ‘생명’ 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2.
- 테사 모리스 스즈키, 임성모 옮김(2006),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산처럼, p.239.
- 하타노 세츠코, 최주한 옮김(2008), 『『무정』을 읽는다』, 소명출판, p.40.
- 渡辺正雄(1971), 『進化論講話』解説, 講談社學術文庫, p.245.
- 松尾尊兌(2001), 『大正デモクラシー』, 岩波書店, pp.149~150.
- 神崎清(1996), 『反戦・平和の原點, 幸徳秋水』, 『日本の名著 44- 幸徳秋水』, 中央公論社, p.55.

이 논문은 2008년 11월 10일 접수되어 12월 10일까지 심사받아 12월 31일 발행됨

■ ABSTRACT

Modernity of Imperialism and Colony

—Lee Kwang-soo's Trace of thoughts in the Second Studying in Japan—

Choi Ju-han

This thesis illuminated Lee Kwang-soo's thoughts during the second studying in Japan, from the point of view that his thoughts was the outcome of strategic compromise which would utilize the imperial Japanese intention. The imperial Japan in the 1910's military government used dual-ruling strategy that would subordinated Korean to Japanese rule in the name of civilization. Lee Kwang-soo who believed the civilization is the only way to conserve and develop the nation, used the Japanese strategy for the basis to awaken Korean to a sense of national ideal and to establish the national identity. And he went beyond the logic of imperialism that had justified the law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through mutual aid on the basis of sympathy and solidarity. And [2·8 Independence Declaration] made no disguise of the rhetoric of compromise and showed bare face of his thought.

※ Key-words : Lee Kwang-soo, colonialism, civilization, social evolution, sympathy, solidarity